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병원장 이상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3월 20일 시작했다.

1개 병동 46병상을 마련했다. 전동침대, 환자 이동장치, 육상 및 낙상 방지시스템 등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각종 장비를 도입했다. 6인실을 4인실로 바꾸고, 병동 환경을 편안하게 개선했다.

이상준 병원장은 “전 직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오픈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왔다”면서 “환자를 안전하게 돌보는 데 최선을 다하고, 동해시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병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부민병원 연합 QI 경진대회 성료



인당의료재단(이사장 정희태) 산하 4곳의 부민병원은 제2회 연합 QI 경진대회를 3월 24일 개최했다. ‘의료 질 향상과 운영체계의 표준화’를 위해 지난해 진행한 우수 QI활동 결과를 살펴보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부산, 구포, 해운대부민병원에서 총 11개 팀이 참가해 진료 프로세스 개선, 환자만족도, 진료표준화, 업무환경 개선 등의 활동 결과를 공유했다. 최우수상

은 ‘정확한 약물 복용으로 정상 혈압 유지’를 발표한 서울부민병원 인공신장실이 받았다. 정희태 이사장은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가 만족하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ung@

경기도 구리시간호사회 총회 ... 회원 복지증진 주력



경기도간호사회 신하 구리시간호사회(회장 장재선)는 제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22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회원 복지증진에 힘쓰기로 했다.

장재선 회장은 “구리시간호사회는 2017년 창립해 어르신들이 봉사, 명사 특강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뜻 깊은 한 해를 보냈다”면서 “앞으로도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고, 봉사와 사랑으로 지역사회에 숨은 힘을 쓰기로 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까지 살피는 구리시간호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 이선이 경기도간호사회 감사가 격려사, 민경자 구리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했다.

국제한인간호재단 국제보건전문가과정 교육생 모집

국제한인간호재단(GKNF : 이사장 김의숙, 회장 이현경)이 ‘제6기 국제보건전문가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간호사들의 국제보건 역량을 개발하고, 국제보건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경력 3년 이상인 간호사로 보건 및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ODA)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국제보건 분

야에서의 간호사 역할, 사례분석을 통한 국제보건실무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액션플랜 도출을 통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고 평가해보는 그룹활동이 진행된다.

교육기간 5월 12일~6월 2일 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30분. 교육장소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육비 50만원.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다운 받아 제출.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gknf.or.kr) 참조. 문의 070-4335-4424~7.

개 시 판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표현예술치료학회(회장 임용자)는 2018 춘계학술대회를 ‘웅 심리학과 진정한 동작(Authentic Movement)’ 주제로 4월 14일 오전 10시 성균관대 글로벌센터 12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미루 운동과 관련해 웅 심리학적 관점에서 나루미, 예술치유의 자기치유 사례가 발표된다. 오센택 무브먼트 실습이 진행된다. 표현예술치료는 예술과 교육, 심리 치료가 하나로 만나 이뤄지는 변형학문이며, 다양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개방적인 실기학문이다. 표현예술치료, 심리상담, 심리치료, 예술교육, 코칭 등에 관심 있는 간호사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신청 및 등록비 홈페이지(www.keata.or.kr) 참조. 문의 02)318-5002.

보건간호학회 춘계학술대회

한국보건간호학회(회장 심문숙)는 2018년 춘계학술대회를 ‘차세대 UHC 실현을 위한 비감염症질환 예방 전략 : 보건간호학적 접근’ 주제로 4월 6일 오후 2시 서울대 의과대학 교육관 104호에서 개최된다. 춘계학술대회는 대한보건협회 및 관련 학술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보건학종합학술대회에서 열린다. ‘만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공중보건 정책 전망’ ‘비감염성질환 예방 전략 : 지역사회와 협력과 과제’ ‘보건소 차원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사업’ 등 주제강연,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www.kshpn.or.kr) 참조. 문의 이메일(kwon1314@hallym.ac.kr).

현대유비스병원 프리셉터 간호사 임명식



현대유비스병원 간호부(병원장 이성호, 간호부장 장성숙)는 ‘2018 프리셉터 간호사 Start Up!’ 행사를 3월 22일 개최했다.

총 36명의 간호사가 프리셉터로 임명됐다. 3~5년간 간호사 중에서 평소 품행과 동료들 간의 유대 관계, 업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프리셉터들은 신입간호사들의 편안한 적응과 원활한 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성호 병원장은 “신입간호사들

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한 만큼 프리셉터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ung@



찾아가는 헌혈 캠페인 중앙대병원 헌혈센터

중앙대병원 헌혈센터가 질병관련부와 함께 ‘찾아가는 헌혈 캠페인’을 3월 20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질병관련부본부, 식품의약안전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오송행정타운의 정부기관에서 200여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중앙대병원 차영주 헌혈센터장은 “정부기관들이 모범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준 데 감사드린다”면서 “올바른 헌혈인식 고취를 위한 교육자료 개발과 헌혈자 교육을 통해 원활한 혈액 수급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앙대병원은 2012년 국내 대학 병원 최초로 보건복지부 지정 국가 헌혈사업자로 선정돼 병원 인근에 헌혈센터를 오픈했으며, 적극적으로 헌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최수정 기자 sjchoi@

샘병원 ‘간호대학생 비전트립’ 개최



효산의료재단(이사장 정희태) 산하 대간호전문가 확보를 위한 ‘2018년 간호대학생 Vision Trip’을 3월 24일 지샘병원에서 개최했다. 간호대학생들에게 간호실무 현장 및 체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동남보건대, 두원공과대, 백석대, 안산대, 한세대 학생들이 참여했다.

임숙자 안양샘병원 간호부장이 헌영사를 했다. 박상은 대표원장이 병원의 비전과 의료선교에 대해 강

의했다. 간호부장과의 대화, 병원 현장 투어, 선배간호사와의 만남 등이 진행됐다. 김호영 지샘병원 간호부장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병원의 미션과 비전을 참출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최수정 기자 sjchoi@

개 시 판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 ‘의료기구 멸균’ 학술대회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회장 유주화)가 병원감염 예방에 필수적인 ‘의료기구 멸균’의 최신지견과 학술연구를 공유하는 춘계학술대회를 3월 23일 개최했다. 전국 병원의 중앙공급실 간호사 2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2017 전국 중앙공급실 운영현황’ 조사결과가 발표됐으며, ‘2017 세계멸균학회’ 참석결과가 보고됐다.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에서 발간한 ‘중앙공급실 간호사’에 관심 있는 간호사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신청 및 등록비 홈페이지(www.keata.or.kr) 참조. 문의 02)318-5002.

밀접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무표준을 형성시키고자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가 2013년부터 해오고 있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올바른 포장을 멸균 지킴이’ 주제

로 8개 기관이 참여했다. 대구가 대구대병원이 최우수상을, 영남대 병원과 전남대병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주화 회장은 “세계적으로 의료관련 감염관리가 주목받으면서 중앙공급실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중앙공급부서에서 업무표준 지침서” 5차 개정판이 공개됐다. 개정판에서는 재처리과정의 실무적 근거와 기준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았다. 환경·시설관리, 직원 안전 등을 강화했다.

밀접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무표준을 형성시키고자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가 2013년부터 해오고 있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올바른 포장을 멸균 지킴이’ 주제

로 8개 기관이 참여했다. 대구가 대구대병원이 최우수상을, 영남대 병원과 전남대병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주화 회장은 “세계적으로 의료관련 감염관리가 주목받으면서 중앙공급실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중앙공급부서에서 업무표준 지침서” 5차 개정판이 공개됐다. 개정판에서는 재처리과정의 실무적 근거와 기준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았다. 환경·시설관리, 직원 안전 등을 강화했다.

밀접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무표준을 형성시키고자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가 2013년부터 해오고 있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올바른 포장을 멸균 지킴이’ 주제

로 8개 기관이 참여했다. 대구가 대구대병원이 최우수상을, 영남대 병원과 전남대병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주화 회장은 “세계적으로 의료관련 감염관리가 주목받으면서 중앙공급실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중앙공급부서에서 업무표준 지침서” 5차 개정판이 공개됐다. 개정판에서는 재처리과정의 실무적 근거와 기준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았다. 환경·시설관리, 직원 안전 등을 강화했다.

밀접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무표준을 형성시키고자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가 2013년부터 해오고 있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올바른 포장을 멸균 지킴이’ 주제

로 8개 기관이 참여했다. 대구가 대구대병원이 최우수상을, 영남대 병원과 전남대병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주화 회장은 “세계적으로 의료관련 감염관리가 주목받으면서 중앙공급실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중앙공급부서에서 업무표준 지침서” 5차 개정판이 공개됐다. 개정판에서는 재처리과정의 실무적 근거와 기준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았다. 환경·시설관리, 직원 안전 등을 강화했다.

밀접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무표준을 형성시키고자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가 2013년부터 해오고 있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올바른 포장을 멸균 지킴이’ 주제

로 8개 기관이 참여했다. 대구가 대구대병원이 최우수상을, 영남대 병원과 전남대병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주화 회장은 “세계적으로 의료관련 감염관리가 주목받으면서 중앙공급실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중앙공급부서에서 업무표준 지침서” 5차 개정판이 공개됐다. 개정판에서는 재처리과정의 실무적 근거와 기준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았다. 환경·시설관리, 직원 안전 등을 강화했다.

밀접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무표준을 형성시키고자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가 2013년부터 해오고 있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올바른 포장을 멸균 지킴이’ 주제

로 8개 기관이 참여했다. 대구가 대구대병원이 최우수상을, 영남대 병원과 전남대병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주화 회장은 “세계적으로 의료관련 감염관리가 주목받으면서 중앙공급실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중앙공급부서에서 업무표준 지침서” 5차 개정판이 공개됐다. 개정판에서는 재처리과정의 실무적 근거와 기준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았다. 환경·시설관리, 직원 안전 등을 강화했다.

밀접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무표준을 형성시키고자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가 2013년부터 해오고 있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올바른 포장을 멸균 지킴이’ 주제

로 8개 기관이 참여했다. 대구가 대구대병원이 최우수상을, 영남대 병원과 전남대병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주화 회장은 “세계적으로 의료관련 감염관리가 주목받으면서 중앙공급실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중앙공급부서에서 업무표준 지침서” 5차 개정판이 공개됐다. 개정판에서는 재처리과정의 실무적 근거와 기준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았다. 환경·시설관리, 직원 안전 등을 강화했다.

밀접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무표준을 형성시키고자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가 2013년부터 해오고 있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올바른 포장을 멸균 지킴이’ 주제

로 8개 기관이 참여했다. 대구가 대구대병원이 최우수상을, 영남대 병원과 전남대병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유주화 회장은 “세계적으로 의료관련 감염관리가 주목받으면서 중앙공급실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중앙공급부서에서 업무표준 지침서” 5차 개정판이 공개됐다. 개정판에서는 재처리과정의 실무적 근거와 기준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았다. 환경·시설관리, 직원 안전 등을 강화했다.

밀접교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실무표준을 형성시키고자 병원중앙공급간호사회가 2013년부터 해오고 있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올바른 포장을 멸균 지킴이’ 주제

로 8개 기관이 참여했다. 대